# 광주시, 유기견 200마리 수용 '동물보호센터' 개소

## 북구 본촌동에 45억여원 들여 지하1~지상2층 규모 신축
## 연중무휴 직영… 보호실·진료실·미용실 등 최첨단시설 갖춰
## 입양상담 사전예약제로… 동물복지 향상·입양 활성화 노력

광주시가 유기동물 보호실과 진료실, 입양상담실 등을 갖춘 '동물보호센터'의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광주광역시는 24일 강기정 시장과 장미선 동물보호센터장을 비롯해 김나윤·임미란·채은지 광주시의원, 김광남 광주시수의사회장, 김동일 전남대 수의과대학 부학장, 노홍기 건국동 주민자치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북구 본촌동에 신축한 '동물보호센터 개소식'을 했다.

광주시동물보호센터는 국비를 포함해 총 사업비 45억2500만원을 투입, 지하 1층~지상 2층 대지면적 3307㎡(1000평), 건축면적 999.8㎡ 규모로 신축됐다. 유기견 200마리를 수용할 수 있는 보호시설과 사무실, 미용·세탁실, 진료실, 수술실 등의 공간을 마련하는 등 동물복지 기준에 맞춘 현대적 시설을 갖췄다.

광주시동물보호센터는 신축 동물보호센터(본촌마을길 25-1)와 기존 동물보호센터(본촌마을길 27)를 통합해 광주시가 직접 운영한다.

신축 센터 건물에는 유기견(개)을, 기존 센터 건물에는 유기묘(고양이)를 수용한다. 광주시는 올해 노후화된 기존 센터의 시설을 개선하는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센터 운영은 일반직 공무원, 수의사, 훈련사 등 5명의 직원과 사양관리 용역 9명 등 총 14명이 유기·유실 동물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고 빠른 주인찾기와 입양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중 무휴이며, 입양 상담은 사전예약제로 운영한다.

광주시는 동물보호센터 시설 현대화로 유기동물의 복지수준을 한층 높이는 한편 시가 직접 운영함으로써 유기동물의 보호에서 입양까지 공공성과 책임성을 더욱 높였다. 환기시설과 방음벽 설치 등으로 소음·악취 문제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시민 인식 개선 교육과 입양홍보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유기동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더 많은 보호동물들이 새 가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동물보호센터 신축 개소에는 광주시와 지역주민의 상호 신뢰와 소통에 기반한 협력이 빛을 발했다. 2023년 8월 강기정 시장이 건국동주민자치회 등 지역주민들과 직접 간담회를 진행, 10년여간 지속되어온 갈등을 마무리짓고, 동물보호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동물보호센터는 유기동물의 보호부터 입양까지 전 과정에서 책임성을 키워 동물복지·반려문화를 선도하고, 주민 삶의 질도 높아질 것"이라며 "건국동 주민 등 동물보호센터 개소를 위해 노력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광주시는 앞으로도 반려동물도 한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박도일 기자

## 2025 광주아트패스 출발, 골목·미식 관광 선봬
### 출시 7개월 만에 7,640명 가입… 지역경제 활력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지역 유일 스마트 관광플랫폼 '광주 아트패스'가 괄목할 만한 성장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출시된 광주 아트패스는 광주만의 특별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스마트 기술과 접목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광주 예술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한 스마트 관광 플랫폼이다.

지난 7개월간 광주 아트패스는 ▲아트패스 특화상품 ▲아트패스 자체 기획 관광상품 ▲협력 가맹 할인 패스(맛 기행 '미미패스' 금액권 등) ▲OTA 상품 및 인접 시군구 연계 상품 등 광주를 알차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로컬 여행상품으로 인기를 끌며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인기를 얻었던 프로그램은 '우리들의 시간은 이어져 있다', 책맥투어, 대인 야시장 '귀장Ⅲ' 패스, 충장축제 골목 투어 ZIP, 독립영화 인문 투어 등이다.

이들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은 이유는 광주의 맛집, 숙박 시설, 관광지, 미술관 등 다양한 로컬 가맹점을 앱 하나로 간편하게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인기에 힘입어 광주 아트패스는 운영 7개월 만에 7,640명 가입, 199개 가맹점 모집, 총 2,701건, 5천 2,43만 4000원의 매출을 올리는 성과를 거뒀다.

광주 아트패스는 최근 위탁사 선정을 끝냈으며 올해는 ▲동구 대표 골목 관광 상품 '동구칠성' 퍼즐·스탬프 투어 ▲체류형 관광상품 '동네라이프' 통합 운영 및 1박 이상 할인 확대 ▲동구 미식 관광 식도락 투어 등 다양한 상품과 풍성한 혜택으로 여행객들에게 특별한 예술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가맹점 모집·교육 확대 ▲가맹점 아트패스 시그니처 상품개발 ▲가맹점 관광홍보관 역할 강화 등을 통한 인센티브 지원 확대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개별 자유여행객의 증가에 따라 광주가 가진 예술 관광자원을 활용해 맞춤형 여행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기획·운영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광주를 찾는 여행객들이 편리하게 광주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아트패스를 활용한 스마트한 관광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철수 기자

## 광주 남구, 열 차단 '쿨루프 보급' 확대 나서
### 행정복지센터·송암동 주택 등 42곳에 설치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여름철 열섬 현상 완화를 위해 관내 행정기관 건물을 비롯해 기후위기 취약 가정에 쿨루프 확대 보급에 나선다.

남구는 24일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사업비 3억 3,000만원 가량을 투입해 쿨루프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냉방 효율을 개선해 불볕더위 시즌에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 기 위함이다.

올해 쿨루프를 설치하는 장소는 공공시설인 관내 행정복지센터 6곳과 건강생활지원센터 1곳을 비롯해 송암동 관내 기후위기 가정 주택 34곳, 지역아동센터 1곳이다.

먼저 공공시설 쿨루프 보급 확대에는 지구 온난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의지와 실행 노력이 담겨 있다.

주민들께서 수시로 이용하는 장소여서 여름철 에너지 소비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에너지 사용량이 늘릴 때마다 온실가스 방출량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남구는 사업비 9,000만원 정도를 투입해 방림1·2동과 봉선1동, 사직동, 월산5동, 백운1동 행정복지센터, 주월건강생활지원센터 건물 옥상에 하얀색 차열 코팅과 차열 방수 작업을 실시해 오는 6월말까지 쿨루프 설치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임채일 기자

## 북구,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 무료로 '안전 점검' 받으세요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지어진 지 30년이 지난 건축물을 대상으로 무상 안전 점검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정기 안전 점검 의무가 없는 노후 건축물의 안전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전 점검은 경과 연수 30년 이상, 연면적 500㎡ 이하, 2층 이하인 시설 중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주택이거나 1·2종 근린생활시설이면서 건물 구조가 목조 또는 조적조인 민간 건축물을 대상으로 제공된다.

올해는 총 1억 5천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310개소의 노후 건축물에 안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달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참여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등 건축 전문가 2인으로 구성된 안전점검단이 현장에 방문하여 안전점검표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 등급을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등 5개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안전 점검 결과가 미흡 또는 불량 등급으로 판정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 중 2차 정밀 점검을 진행한다.

/송현근 기자

##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체육인에게 전남관광 매력 알린다
### 여수 오동도·목포 해상케이블카 등 핫플레이스 팸투어

전라남도가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과 연계해 전남 관광 활성화와 관광 인지도 제고를 위해 대회 참가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전방위적 관광 홍보에 나섰다.

생활체육대축전 선수단과 가족에게 주요 관광지 방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여 명을 대상으로 4개 권역별로 출발하는 팸투어를 진행한다.

팸투어는 당일 여행으로 목포 해상케이블카, 여수 오동도, 담양 죽녹원, 장흥 우드랜드, 강진 가우도 등 권역별 주요 관광지가 대상이다.

주 경기장인 목포경기장에는 29개 부스를 설치해 문학기행, 민간정원, 가고 싶은 섬 등 테마형 관광지와 2025 국제 남도미식산업박람회,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등 대규모 이벤트를 홍보한다.

주 경기장 외에도 각 시군에서는 음악공연과 버스킹, 소규모 축제 등 이벤트를 연계해 선수단 등에게 전남의 멋과 정을 느낄 기회를 제공한다.

심우정 전남도 관광과장은 "생활체육대축전 참가자들이 전남을 다시 찾고 싶도록 전남의 맛과 멋을 적극 홍보하겠다"며 "전남도의 '5월! 전남 방문의 달' 프로모션도 함께 알려 5월이 전남관광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염선호 기자